

뮤지컬 '마리 퀴리' 광주 상륙



다음달 2~3일 광주예술의전당 '라둠' 빛과 그림자 조명 여성 과학자로서 삶 다뤄 영국 등 글로벌 극장가서 호평



뮤지컬 '마리 퀴리'에서 퀴리(김소현 분)가 실험기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라이브(주) 제공>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온 맘이 들끓어” 역사상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 하나인 손꼽히는 마리 퀴리를 극화한 뮤지컬 '마리 퀴리' 속 명대사다. 여성 과학자가 활동하기 어려웠던 20세기 초 그녀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미스 폴란드'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마리는 남편 피에르 퀴리와 공동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는 한편, 남편 사후에는 홀로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해 근대과학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퀴리는 자신에게 성취를 가져다준 방사능으로 인해 골수암, 백혈병을 앓다가 타계했다.

마리 퀴리의 일대기를 다룬 공연이 열린다.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라이브(주)가 기획한 뮤지컬 '마리 퀴리'를 3월 2~3일(오후 2시, 6시 30분) 4회에 걸쳐 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뮤지컬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당과 협력해 선보이는 작품이다. 폴란드,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 무대에 올라 왔으며, 제5회 뮤지컬어워즈에서 5관왕을 석권하는 등 글로벌 극장가를 종횡무진했다.

1891년 소르본대학 입학에 위해 떠나는 프랑스로 향하는 길에서 퀴리는 안느를 만난다. 두 사람은 약소국이자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감하며 서로 친구가 된다.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 퀴리는 새로운 원소 라듐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고, 안느는 퀴리가 소개해 준 라듐 시계 공장

에 취업한다.

한편 안느가 일하는 공장에서 직공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 나간다. 인류에게 수많은 편리를 제공해 준 라듐의 빛과 그림자를 묵도하고, 퀴리와 안느는 선택의 갈래마 앞에 놓인다.

주역 '마리 스크로도프스카 퀴리' 역에 뮤지컬 '엘리자벳', '지킬 앤 하이드' 등에서 열연한 배우 김소현, '헤드윅', '서편제' 등 활약한 배우 유리아가 출연해 2인 2색의 매력을 표현한다. 그녀의 남편 '피에르 퀴리' 역에 박영수·김지철·임병이, 레흐 노바크 역에 광주 출신 배우 황수빈이 관객들을 만난다.

'라둠 파라다이스', '그댄 내게 별' 등 뮤지컬 주요 넘버들을 감상할 수 있다. 루벤과 피에르의 듀엣 '어둠 속에서'나 블랙 미스 폴란드의 중

창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20세기 과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리 퀴리의 삶을 창작 뮤지컬로 풀어낸 이번 공연은 그녀의 희생, 우정과 사랑,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으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며 "일찍이 해외 쇼케이스인 'K-뮤지컬 로드쇼'를 통해 호응을 얻었던 만큼, 광주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VIP석 9만9000원, S석 6만6000원 등, 전당 누리집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중혁 소설가가 읽어주는 책 속 문장은?

내일밤 인문360° '한밤의 낭독자들' 출연... 28일 시즌1 종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오는 21일 밤 9시에 여는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인문360°·이하 인문360°) '한밤의 낭독자들'에 김중혁(사진) 소설가가 출연한다.

인문360°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학습 및 후속 활동 지원, 다양한 인문콘텐츠와 인문학 아카이빙 등을 지원하는 종합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이다.

2000년 소설 '뽕나무'로 데뷔한 김중혁 소설가는 제6회 심훈문학대상, 제46회 동인문학상, 제3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제1회 문

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을 비롯해 김유정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 문학적 주요 상을 석권하며 이름을 알렸다. 저서로 '스마일', '손 흔드는 소설', '달리터', '모든 게 노래' 등이 있다.

한편 '한밤의 낭독자들'은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정지우 작가(변호사), 박준 시인, 시와 싱어송라이터 등이 출연해 직접 선정된 책과 문장들을 낭독해 시민들을 위로했다. 또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그에 얽힌 진술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누기도 했다.

문예위 관계자는 "존재와 죽음, 삶 그리고 인간

의 의지 등을 짚듯하게 그려낸 김 소설가가 읽어주는 책 속 문장들이 청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마지막 한 회차만 남기고 있는 인문360에 출연하는 사회 각 분야의 인물들이 전하는 공감의 메시지가 일상 속 작은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진행되는 시즌1 마지막 출연자는 김겨울 작가 겸 유튜버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상대 마음 보듬는 '공감하는 말하기'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공감 대화법' 펴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실언은 부모나 형제, 친구, 연인,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많기 때문이죠. 한편으론 그들에게 훨씬 더 공감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를 입지요."

전직 아나운서인 박진영(사진)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는 늘 '공감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일반적인 말하기가 아닌 공감을 전제하라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실언과 공감하는 말하기는 음과 양처럼 상반되는 짝이다.

박 대표가 최근 펴낸 '공감 대화법'(라의 눈)은 공감과 배려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한번쯤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는 책을 펴내게 된 이유에 대해 "흔히 말을 예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미사여구를 잘 활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듣는 이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할 줄 알고, 그것을 잘 전달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격정과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도움을 준다"며 "문제는 백 번 예쁘게 말해도 한 번 큰 실언을 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관계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번 책에서 '공감'의 반대어인 '실언'을 하게 되는 것은 "말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언의 구조를 이해하면 공감하는 말하기에 무엇인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저자는 2013년 8월 2일 일본 '아사히신문' 사회면 머릿기사로 실린 '실언, 몇 번째 입니까'를 예로 들었다. 당시 실언을 반복하는 아소다로 부총리의 언어 습관을 꼬집은 기사였다. 아소



부총리는 '의사들 중에는 사회적 상식이 결여된 사람이 많다.',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나는 돈이 없는 편이 아니었지만 결혼이 늦었다' 등의 실언을 반복했던 것.

박 대표는 실언을 반복하는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말하거나 너무 빠르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끔적이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상대의 감정상태를 공감하면 실언을 줄일 수 있다'로 요약된다. 박 대표는 "누군가로부터 감정이 존중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역설함이나 화가 누그러질 수 있다"며 "자신이 하는 말을 객관화해 고칠 점을 찾아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객원교수이기도 한 박 대표는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BS, TBN 등에서 아나운서로 일했으며 행사 개막식과 토론회, 토크쇼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박에 통하는 전달력 수업', '아나운서처럼 매력있게 말하기'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관광 스타트업 발굴·활성화 노력

관광공사, 지난해 공모전 등 진행 27개 관광기업 발굴·일자리 창출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김진강)가 운영하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역 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센터는 성장단계형 맞춤형 프로그램, 스타트업 공모전,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해 지난해 총 27개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52명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통해 스타벅스 굿즈 납품(쏘잉), 무등산 수박커피 분말 특허출원(더좋은커피) 등을 지원했고 그 성과로 국무총리상(민디마인드)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ARTBOX AVENUE 2024'에서 광주다운 티버트 등 지역기업 상품 전시를 통해 광주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데 일조했다.

올해에는 신규 입주하는 무빙트립, 스토리빌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원한 '더좋은 커피'의 '무등산 수박커피 분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제공>

런, 길손 등 7개사를 포함한 총 21개의 관광기업에게 사무공간과 다양한 B2B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관광사업체 육성 아카데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관광기업 라이브커머스 진출, 관광 일자리상담소 운영 등 신규사업을 비롯한 총 17개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기재활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